

솔로몬 소식

2012. 6. 13

IDI SOLOMON ISLANDS

통권 21호 12-2호

정글지역 탐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정글지역에 대한 정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7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의 산을 오르기도 하고 세찬 강물을 가르며 찾아간 정글 깊은곳의 마을에서 때로 반가운 얼굴로, 때로는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로 외부의 선교팀의 방문을 처음 받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모로(Moro)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그리 깊이 종교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찾아가면 먼저 추장을 만나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뒤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문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전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추장과 대화의 대화를 통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조사 양식에 의해 작성하고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사진을 촬영한뒤 마지막으로 가져간 성경을 선물로 전해 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정보를 기초로 전략적으로 교회개척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교회개척을 위한 계획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주요 사진 설명>

1. 현지 협력교회 리더들.
2. 마을 추장에서 성경을 전해줌.
3. 정글지역 많은 아이들이 앓고있는 수인성 피부병.
4.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찰리바사 마을



1



2



3



4

기 도 제 목

1. 십가의 은혜 안에 머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하도록.
2. 솔로몬 군도내의 분열과 폭력,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3. 최근 정탐 지역인 투루라나(Tururana: 주민 약 3천여명 거주, 교회 없음)를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방문예정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정글지역 정탐이 진행되도록.
4. 성경공부중인 현지인 형제들(데릭, 존)이 믿음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5. 홍수로 마을 입구의 목재교량이 붕괴되어 중단된 벨라하 커뮤니티의 우물 사업이 추진 될수 있도록.
6. 김은미 선교사의 유치원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도록.

*발렌티어로 정탐에 동참할수 있는 YWAM의 DTS 훈련과 선교 훈련 경험이 있는 현지인 동역자 필레몬 형제가 연결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 한분의 후원으로 처음으로 새 티셔츠를 입어본 정글지역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상) 방학을 앞두고 그동안 배운 율동 발표시간(하)

솔로몬 정보 : Solomon Islands can do it !



솔로몬군도에서 개최한 오세아니아 컵(OFC)에서 우승한 타이티 선수들



태평양 아트 페스티벌 준비로 건립중인 아트 갤러리

2012년 솔로몬 군도에는 큰 행사가 많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까지 뉴질랜드를 비롯한 8개 나라가 참가한 오세아니아 컵 축구경기를 시작으로 7월에는 남태평양 26개국 이 참가하고 3,000여명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태평양 아트 페스티벌이, 같은 시기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무역 행사, 9월에는 영국 왕실의 윌리엄 황태자 내외의 방문등 여러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를 정비하고 행사장을 만들면서 예외적으로(?) 야간 작업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군도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의 70%를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유엔지정 최빈국, 카지노 사장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3년째 호텔 객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수장으로 선발하는 부정부패가 팽배한 이땅에도 약간의 가능성을 볼수있는 시간입니다.



연락처

주소

P.O Box 86 Honiara
Solomon Island

이메일

cjh5690@naver.com
cjh5690@gmail.com

전화

+677-7456108
+677-7558001